

#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한 이미지에 대한 고찰

- 1990년대 복식과 건축디자인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agery Terms of Korean Cultural Identity

- Focused on Papers of Fashion and Architectural Design in the 1990s-

김 영 인 (Kim Young-in)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 전공 교수

김 지 선 (Kim Ji-Sun)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과정

김 지 영 (Kim Ji-Young)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과정

김 혜 수 (Kim Hye-Soo)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과정

박 연 주 (Park Yeon-Joo)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류환경학과 박사과정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방법

2.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관련된 문헌 고찰

- 2-1.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개념
  - 2-1-1. 문화정체성
  - 2-1-2. '한국적'과 '한국의' 의미 비교
-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
  - 2-2-1.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
  - 2-2-2. 건축 및 실내디자인분야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

3.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이미지어 분석 결과

- 3-1.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 3-1-1. 형
  - 3-1-2. 선
  - 3-1-3. 공간
  - 3-1-4. 색채
  - 3-1-5. 재질
- 3-2.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 3-3. 추상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 3-3-1. 사상
  - 3-3-2. 관념
  - 3-3-3. 감성/감정
  - 3-3-4. 심미성
- 3-4. 표현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 3-5. 기능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4.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이미지어들을 도출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정서와 이미지를 구체적인 어휘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1990년대에 발표된 복식과 건축 디자인 논문 중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디자인 요소, 디자인 원리, 추상성, 표현성 그리고 기능성의 요인과 관련된 이미지어를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복식과 건축디자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공통성과 차별성을 규명한 결과,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오던 한국의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이제까지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인식되어온 무채색, 소박함, 한(恨)과 비애, 간접적 표현 등을 나타내는 이미지 외에도 화려한 색채, 고귀함, 즐거움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표현도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축디자인에서는 복식디자인보다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oncrete imagery terms that characterize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to express Korean feelings and images through those words. We classified the selected imagery terms into the elements of design, the principles of design, abstraction, expression and function.

As a result, new aspects of the Korean image are as follows.

- 1. It recognized that the colors representing the Korean image are not only achromatic but also splendid.
- 2. Noble images with common images have taken up a large part of Korean traditional image.
- 3. Pleasant images as well as sad images should be presented as a new perspective to express Korean cultural identity.
- 4. Indirect image rather than direct image appears frequently, while positive/active image appears frequently. Since this image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Korean present image it cannot be overlooked as Korean traditional image.
- 5.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s expressed as functional and rational.

Up until now, representative imagery terms about Korean cultural identity appear to be positive and active and we know that Korean feelings and images are implying more variety to the image generally recognized at this time.

Therefore, if today's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y, and values are compared and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designs are appropriately combined above Korean cultural identity with these results, this will provide an essential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Korean designs.

(Keyword)

Korean cultural identity, Korean cultural image, Korean fashion design, Korean architectural design, Imagery term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전 세계는 기술발전예 의해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적어지면서 지구촌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 민족의 고유성을 특징짓는 종교, 문화, 관습, 언어, 사상 등은 계속 유지 발전되어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각 민족의 특성을 강조하는 지역화(glocalization) 양상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각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제품을 경쟁하게 되므로, 이때 자국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상품가치를 개발한다면 우수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그러한 문화적 가치를 상품으로 담아 내는 구체적인 그릇이 된다. 한편,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인하여 60년대 이후부터 서구세계를 중심으로 점차 자연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한정된 자원을 미래사회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동양의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인간 중심의 질(質)적 가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세계 추세에서 전통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간의 시·공간적 동질화 현상은 자국의 전통을 단순히 복고적 수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당위성을 주고 있다. 또한 전통에 바탕을 둔 요소들이 우리의 문화 정체성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세계 속에서 주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의 동시대적인 생활양식과 미의식의 변화에 바탕한 문화정체성이 시각적으로 잘 구체화되어 있는 디자인분야에 나타난 한국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각 디자인 분야에 따라 다르나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복식디자인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관심초기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은 피상적으로 드러난 전통 요소들을 인용한 키치(Kitsch)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우리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다수가 복식디자인, 산업디자인, 건축 및 실내 디자인 등의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어 세분화된 영역에서의 특성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특징짓는 원형(原形)으로 공유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하여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 문화의 특성에는 생활의 의, 식, 주와 관련되어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면 한국문화의 원형적인 공통 요소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찾고 이를 적용하여 문화적 가치를 담은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개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한국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어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분야에서 한국적 정서와 이미지를 디자인에 적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체를 둘러싼 환경으로 인간의 의생활과 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특유의 형태, 정신, 사상, 정서, 미적 가치를 형상화하는 공통점을 갖는 복식과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선행문헌과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되어 표현된 이미지어들을 분석하였다.

최근의 한국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1990년대의 각 디자인 분야별로 권위있는 국내 학회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복식디자인 분야는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을 고찰하였고, 건축 및 실내 디자인분야는 '대한건축학회지', '대한건축학논문집', '대한실내디자인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전통을 고증한 논문보다는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수집된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어들을 추출한 후, 디자인 요소, 디자인 원리, 추상성, 표현성, 기능성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을 다시 세부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때 이미지어의 분류는 인간을 기준으로 묶었고, 같은 어휘더라도 본문에서의 의미에 따라 요인이나 세부항목을 정하였다. 이미지어의 중요도는 각 논문별 이미지어의 빈도수로 측정하였고, 복식과 건축분야 비교분석은 백분율로 평가하였다. 이때 한 논문에서 한 이미지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날 경우 전체 이미지어의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 논문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미지어의 빈도는 한 번으로 정하고 각 논문별 빈도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식과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난 이미지어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어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은 조선시대 상류층의 복식과 건축에 관한 것이 많았고 특히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분석 대상이 대부분 여성복식에 국한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중복된 경우에도 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수가 적으므로 그 논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 2.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관련된 문헌 고찰

### 2-1.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개념

#### 2-1-1. 문화정체성

'문화'는 인류 공통적인 특성에 기반을 둔 세부 특질들이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사회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 시대까지의 지식을 축적, 계

승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변화하는 것이다.<sup>1)</sup>

‘정체성’은 ‘자기다움’, ‘자기스러운 것’으로 ‘문화적 정체성’은 환경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적 전통을 뜻한다.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출발해야 하는 현재성, 다수가 좋아하고 염원하는 대중성, 타문화 수용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주체성을 들 수 있다.<sup>2)</sup>

역사적 의미를 지닌 모든 문화는 문화적 전통을 지니며, 그와 같은 전통이 그 문화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이다. 집단은 문화정체성을 통하여 문화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영위하지만 사회환경이 변화하여 신·구의 문화가 공존·갈등하면 문화 정체성은 흔들리고 이러한 과도기적 문화의 혼란은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집단이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면 적극적인 신문화의 건설로 문화가 발전하게 되지만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옛 문화의 단절과 파괴로 문화가 퇴보하게 된다. 이처럼 문화적 정체성은 집단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동기, 열망, 계획, 실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집단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sup>3)</sup>

한 나라의 문화정체성을 탐구하기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언어이며 또 다른 방법은 그 나라의 각 문화분야에서 공통 속성을 찾는 것으로 이 공통 속성은 정신적인 것이다.<sup>4)</sup>

## 2-1-2. ‘한국적’과 ‘한국의’ 의미 비교

‘한국적’이라는 말은 한국의 디자인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적(的)’의 사전적 의미는 명사 밑에 붙어서 ‘...임’, ‘...인’, ‘...와 같은’ 또는 ‘그러한 성질을 띤’, ‘그런 상태를 이룬’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이라는 뜻은 ‘한국에 관한 모양’, ‘한국다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이란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디자인하였을 때 ‘한국다운’, ‘한국의 성질을 띤’, ‘한국의 모양을 닮은 상태’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디자인한 디자인은 ‘한국적 디자인’이 아니라 ‘한국의 디자인’이라 해야 하며 오늘날 우리가 ‘한국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한국인의 성질을 잃고 있거나 타자화된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이 아닌 ‘한국의’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

### 2-2-1.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패션에서는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복식디자인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자국의 전통과 현대성을 결합시키고 변형하여 전통을 재창조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 각 나라는 서양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복식문화를 창출하였다.

한편, 한국 전통복식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복식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한국전통복식요소를 직접적으로 응용한 디자인으로 표현되던 것이 1990년대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발전하였다.

현대 복식디자인에서 한국의 복식미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통복식의 재현이나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감각 속에 녹아있는 원형(原形)에 대한 이미지의 표현이며 한국적인 조형감각의 패션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복식은 일반적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으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과정에서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따라서, 한복의 조형적인 독창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신들의 컬렉션에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이라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 패션계에도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복식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기숙<sup>6)</sup>은 조선복식의 미적 특징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풍성한 형태감 속에 곡선과 율동미를 함유한다고 하였다. 또한 깊이 있고 차분한 소재(素色)와 백의 아름다움 위에 흑백의 조화, 원색과 색동의 조화와 같은 의외의 변격이 나타나는 미적 특징이라고 하였다. 문양에 있어서도 직물의 소문(素文)과 지문에 의한 은은한 미가 주류를 이루지만 과격적인 원색의 문양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소재에 있어서는 생성감을 지니는 자연 그대로의 소재가 애용되면서도 매끄럽고 고운 소재에 대한 집착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의 미적 가치를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그리고 전통미 등으로 분류하였다. 자연미는 조선시대인들의 성품과 풍류사상, 경천사상 등에서 연원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각종 미적 특징들을 등장시켰다. 인격미는 당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던 유교의 윤리관과 규범을 근거로 복식을 통하여 신분에 따른 인격을 표시하는 미적 특징을 도출시켰다. 한편 벽사의 미는 민속신앙이나 무속 등의 기반 위에 문양, 색채, 장신구 등을 통하여 강한 주술성과 우의를 상징하는 미적 특징을 가미시켰고, 전통미는 조선시대인들의 보수적인 성품과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조선복식의 외형적 특성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드러나게 하였다. 결국 자연미, 인격미, 벽사의 미, 전통미 등의 미적 가치는 생래적인 한민족의 기질과 성품을 바탕으로 경천사상이나 풍류정신 등과 같은 사상적 배경과 민속신앙, 불교, 도교, 유교 등과 같은 종교들의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시원(始原)되며 확립되었다.

김윤희<sup>7)</sup>는 한국 복식이 가지는 미적 가치를 복식의 형태를

1) 엄정식·김명석: 제품의 문화적 기능에 있어서 친근성 인자에 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22권, 9호, (1997)

2)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103-114, (1997)

3) 변해석: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38, (1998)

4) 탁석산: 상계서, 43-47

5) 김영기: Native design의 개념, 디자인학연구, 17권, 3호, (1996)

6) 금기숙: 조선복식미의 연구, 복식, 14호, 180-181, (1990)

중심으로 도출하였는데, 이는 전통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성, 순수성, 해학성으로 나타났다. 자연성은 보다 자연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외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재의 솔직한 노출, 우연하고 부드러운 선 등으로 나타났다. 순수성은 인체 형태의 재현보다는 기하학적 순수 도형에 의한 복식 조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학성은 길상의 염원과 주술의 의미를 담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색채와 문양의 사용과 인체 형태의 과장이나 왜곡으로 인한 의외성에서 보여지는 미적 가치라고 하였다.

최세완·김민자<sup>7)</sup>는 한국 복식의 전통미를 형식미와 내용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형식미로는 선의 미, 비구조적인 평면, 백색의 애호, 자연의 현상에서 보이는 대비색 조화, 유사색 조화, 무채색 조화 등을 들었고, 내용미로는 자연주의에서 발전된 순수미, 무속신앙과 음양오행설에 따른 상징미, 유교적 예념에 따른 비애미를 제시하였다.

이경희<sup>8)</sup>는 현대에 나타난 한국의 복식이미지에 대한 한국 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의 인지 차이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한국적 디자인이 가지는 이미지를 우아성, 단순성, 단정성, 여성성, 여유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곡선의 미', '여유로운 형태', '백의의 미'로 표현되는 형태나 색채, 소재 등 복식의 미적 특징들에서 출발하여 이를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등의 개념들과 연결시킴으로써 미적 가치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 건축 및 실내디자인분야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라 할 수 있다.<sup>10)</sup> 건축에서의 '전통'은 생활공동체 성원간에 이루어지는 생활환경에 대한 공통의 교감을 전체로 하므로,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지니는 집합적 자아로서의 전통에 대한 의식과 그들의 삶과 결부된 수평적 차원에서의 전통의 의미를 되살려 내는 것이다.

1961년 최초의 건축잡지인 「현대건축」에서 윤장섭은 '한국이라는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기인하여 건축이 형성되는 바, 주체성 없는 건축의 무비판적인 모사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현대건축」, 「건축사」, 「건축가」, 「공간」 등의 건축 전문잡지와 「한국 건축양식론」 등의 책자를 통해 거론되었으며, 건축에 민족성이나 지방성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선진문화로부터의 독자성, 후진국의 민족적 자각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이처럼 1960년대 초반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전통에 대

7) 김윤희: 한국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1권, 5호, 150, (1997)

8) 최세완·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17권, 1호, 116, (1993)

9) 이경희: 한국적 의복이미지와 디자인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1권, 2호, 154, (1997)

10) 이법재·김창언: 공공문화건실물의 전통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4호, 4-6, (1994)

한 자각이 제3공화국의 주체적 민족역량의 발휘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관계로 1967년 준공된 '국립부여박물관'에 대한 전통 논의로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표현 논의는 1970년대의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정부주도형의 문화정책이 결합됨으로써 활발히 전개되었다. 1987년 박태근은 「건축과 환경」에서 전통계승발전 과정의 형식논리적 측면에서 1960년대를 태동기로 보고, 1970년대를 성숙기로 구분하였고,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의 건립 및 착공이 이루어졌던 1980년대를 완숙기로 보았다.

건축 분야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건축과 관련된 우리 문화의 특성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무위 자연, 자연친화적, 생태적 건축이라고 하였고, 전통건축의 특성을 영역설정과 해체하기, 느린 체계, 중심비우기 등으로 보았다.<sup>11)</sup>

또한, 한국전통건축은 단위건물과 전체, 그리고 자연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간의 질서와 조직은 규칙적이고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제되고 생동적 공간인 자연과 주변환경으로 열린 공간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sup>12)</sup>

김경재<sup>13)</sup>는 건축에서의 한국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통시적 관점을 필요로 하고, 생활의 변화에 따라 공간과 형태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 요구되며, 건축분야에서 한국성의 표현은 타 분야에 비해 개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작업이라고 하였다. 특히, 1990년대의 생활의 풍요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인의 고유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내재해 있는 주거건축을 통해 한국성을 표현하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전통주거 공간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건축적 형식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건축의 내부 공간을 대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공간 이용자인 인간을 그 축으로 인식하고 그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건축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전통, 한국성 등의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혜경<sup>14)</sup>은 실내건축 영역에서 전통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그것이 한국성과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공시적인 측면을 포함한 어휘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윤복자·이지현<sup>15)</sup>은 천문, 음양오행, 풍수지리 등의 사상적 측면과 온돌 구조인 구들과 마루 등의 물리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거 공간 상징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영순·윤지영<sup>16)</sup>은 1960년대 이후의 한국주택디자인

11) 우경국: 한국 현대 건축에서 정체성의 실체와 표현, plus, 101, 9월호, (1999)

12) 이상해: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정체성, 건축사, 12월호, 38, (1999)

13) 김경재: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1호, 4-5, (1999)

14) 오혜경: 조선시대 상류주택 실내공간의 디자인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3호, 3, (1997)

15) 윤복자·이지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8호, 4-15, (1994)

16) 박영순·윤지영: 1960년대 이후 한국 주택의 스타일과 이미지 분석,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21호, 17-25, (1999)

의 스타일과 이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적 표현의 특성을 변화성과 지속성으로 파악하였는데, 변화요소를 통해서는 한국현대주택의 특성과 경향을 이해하고 지속요소를 통해서는 한국적 디자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을 다루었다.

위와 같이, 건축 및 실내 디자인에서의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성에 입각한 한국성의 구현을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통시적 관점에서 자연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표현적 특성을 그 주된 중심 개념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3.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이미지어 분석 결과

모든 대상은 형태가 존재하고, 그 형태는 존재의 의미를 소유하며, 또한 존재방식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하게 된다. 즉, 형태를 이루는 각 요소와 그 요소의 체계적 사용이라 할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하고, 그 형성과정에서 사회적·심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문화의 특성에 따라 전달·표현되는 방식이 독특하게 나타나며, 또한 디자인의 성능과 쓰임이라 할 수 있는 기능성도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건축이라는 대상을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자 하나의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연구결과 추출된 이미지어휘를 각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즉,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을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로 분류하였고, 역사, 문화, 사상 그리고 철학적 개념 등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을 추상성과 표현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실용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요인을 기능성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어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복식분야의 논문이 총 12편, 건축분야가 총 20편이었다. 복식분야와 건축분야 전체 논문에서 추출된 이미지어의 수는 535개였으며 그 중 복식분야는 219개, 건축분야는 418개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 요소에 관한 이미지어와 추상성에 관한 이미지어가 많이 추출되었다. 디자인 요소 이미지어는 복식분야에서 78개, 건축분야에서 113개로 나타났으며, 추상성 이미지어는 복식분야에서는 99개, 건축분야에서는 205개로 나타났다.

두 분야의 논문에서 추출된 이미지어의 수와 중복빈도를 요인별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 1] 복식과 건축 분야에 나타난 요인별 이미지어 수와 중복빈도

구분	복식		건축	
	이미지어	중복빈도	이미지어	중복빈도
디자인 요소	78	138(31.80)	113	215(27.42)
디자인 원리	21	47(10.83)	27	73(9.31)
추상성	99	209(48.16)	205	380(48.47)
표현성	13	19(4.38)	35	41(5.23)
기능성	8	21(4.84)	38	75(9.57)
합계	219	434(100)	418	784(100)

추출된 534개의 이미지어로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이미지어를 비슷한 의미의 언어별로 정리하여 세부항목별 대표되는 어휘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논문에 나타난 빈도수와 그에 따른 각 분야별 백분율로 나타

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이미지어는 [표3]과 같이 형, 선, 공간, 색채, 재질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복식에서는 형태, 색채와 재질에 대한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났으며, 건축은 형과 공간에 대한 이미지어가 많이 추출되었다. 또한 복식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어가 매우 적게 나타난 반면, 건축은 재질에 대한 이미지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2]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범주	분야	복식	건축
		빈도(%)	빈도(%)
형		40 (9.22)	74 (9.44)
선		28 (6.45)	22 (2.81)
공간		5 (1.15)	75 (9.57)
색채		34 (7.83)	32 (4.08)
재질		31 (7.14)	12 (1.53)
합계		138 (31.80)	215 (27.42)

#### 3-1-1. 형

[표2-1]과 같이 형과 관련된 이미지어 분석에서 복식에서는 '풍성한(2.07%)', '기하학적(1.15%)', '평면의(0.92%)' 등의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났고, 건축에서는 '큰(0.89%)', '좁은(0.89%)', 등의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났다. 두 분야 모두 입체보다는 평면에 관한 이미지어와 '복잡한'보다는 '단순한'과 관련된 이미지어가 많이 추출되었다. 차별적으로 복식에서 '큰'을 나타내는 이미지어만 많이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큰'과 '작은' 이미지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3-1-2. 선

선과 관련된 이미지어 분석은 [표2-2]와 같이 공통적 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식에서는 '부드러운'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강조된 것에 비해 건축분야에서는 '직선적'·'곡선적'과 '부드러운'·'강한'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비슷하게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 3-1-3. 공간

공간을 나타내는 이미지어는 [표2-3]과 같이 복식에서는 거의 추출되지 않은 반면, 건축에서는 '열린'·'닫힌', '연속'·'분절', '높은'·'낮은'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 3-1-4. 색채

[표2-4]에 제시된 색채와 관련된 이미지어는 건축보다 복식에서 더 많이 추출되어 전통복식이 건축보다 색채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분야 모두 공통적으로 '화려한'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고, 복식에서는 무채색보다 자연색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무채색과 자연색에 대한 이미지어가 적지만,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1] 디자인 요소 중 형태와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형태	기하학적		5 (1.15)	정방형	4 (0.51)
				장방형	3 (0.38)
		평면의	4 (0.92)	면적인 평면의 평평한	5 (0.65)
		둥근	1 (0.23)	둥근 원형	4 (0.51)
		각형의	1 (0.23)	각형의	1 (0.13)
		봉긋한	1 (0.23)	도드라진 돌출된 입체적	3 (0.38)
				기하학적 러(凸)자형 만(凹)자형	5 (0.65)
				방사선형 회(回)자형	
				정형적	1 (0.13)
			무정형의	2 (0.46)	비정형적 비조형적
큰 작은	추상적		3 (0.69)	무형	1 (0.13)
		풍성한 넉넉한 밀착되지않는 자연스러운 구속하지않는 느슨한 여유있는 장중한	20 (4.61)	큰 넓은 넓직한 대담한 대형화 둔탁한	15 (1.91)
긴 - 짧은	간결한			작은 좁은 아담한 손바닥만한 최소한의	14 (1.79)
		긴	1 (0.23)	긴	2 (0.26)
단순한 - 복잡한	합계			짧은	3 (0.38)
		간결한	2 (0.46)	단순한 간결한 간단한	8 (1.02)
				복잡한 다양한	3 (0.38)
합계			40 (9.22)		74 (9.44)

[표 2-2] 디자인 요소 중 선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직선적-곡선적	부드러운-강한	직선적 수직적	4 (0.92)	직선적 수평적 수직적	6 (0.77)
		곡선적 유기적	7 (1.61)	곡선적	5 (0.64)
합계	부드러운-강한	부드러운 완만한 유연한 여유있는 굴곡의 완곡한 자연스러운	17 (3.92)	완만한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6 (0.77)
				경사진 가는 강직한 긴장감	5 (0.64)
합계			28 (6.45)		22 (2.81)

[표 2-3] 디자인 요소 중 공간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열린 - 닫힌	연속 - 분절	개방된 열린 전개형의	4 (0.92)	개방된 열린 뚫린 빈 밝은 살려진	18 (2.30)
				폐쇄적 닫힌 정적 소외된	12 (1.53)
일원적 - 이원적	높은 - 낮은	연속성	1 (0.23)	연속성 유기적 연계성 유동적	10 (1.28)
				분절 분리된 분할 분화	7 (0.89)
단순한 - 복잡한	공간성 - 비공간성			일원적 통합된	2 (0.26)
				이원적 이방적 이질적 이촉성	4 (0.51)
합계	높은 - 낮은			높은 깊은	8 (1.02)
				낮은	8 (1.02)
공간성 - 비공간성	합계			단순한	1 (0.13)
				복잡한	2 (0.26)
				공간감 공간성	2 (0.26)
				비공간성	1 (0.13)
합계			5 (1.15)		75 (9.57)

### 3-1-5. 재질

[표2-5]에 나타난 재질을 나타내는 이미지어는 특히 복식이 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두 분야 모두에서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났

으나 복식에서는 '거친'-'부드러운'의 촉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어와 '고운'의 표면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표 2-4] 디자인 요소 중 색채와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자연색		자연스러운 자연색의 착색이 안된 천연그대로의 누른 빛의 일상적인 담백한 투박한	10 (2.30)	자연스러운 자연색의	4 (0.51)
		무채색	4 (0.92)	백색의 백색에 가까운 회색조의	3 (0.38)
화려한		화려한 현란한	5 (1.15)	화려한 화려한	7 (0.89)
다양한		다양한 오색찬란한 형형색색의	3 (0.69)	다양한 다채로운	2 (0.26)
선명한-은은한		강렬한 선명한 영롱한	3 (0.69)	강렬한 선명한 명확한 명쾌한 유쾌한 활기찬	6 (0.77)
		은은한 부드러운 차분한 침착한	5 (1.15)	부드러운 은은한 차분한 안정적	4 (0.51)
밝은-어두운				밝은	2 (0.26)
				어두운 짙은 탁한	3 (0.38)
정갈한		질제된 정결한 정갈한	3 (0.69)	단정한	1 (0.13)
색대비		유사한	1 (0.23)		
합계			34 (7.83)		32 (4.08)

[표 2-5] 디자인 요소 중 재질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시각적 특성		광택의 투명한 비치는 은은한 천연소재의 정제된	9(2.07)	화려한 장식적 자연스러운 재미있는 깨끗한	9(1.15)
		촉각적 특성	거친-부드러운	거친 투박한 뾰족한 까슬한 드레이프스없는 두꺼운	9(2.07)
부드러운 매끄러운 섬려한 드레이프의 흐르는 듯한	7(1.61)			매끈한 질감이 뛰어난	2(0.26)
표면적 특성	고운-투박한	고운	5(1.15)		
		투박한	1(0.23)		
합계			31(7.14)		12(1.53)

### 3-2.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이미지어를 [표3]과 같이 조화, 통일, 대비, 균형, 강조, 울동, 전환, 반복, 점진, 비례의 10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축과 복식 모두에서 조화, 통일, 균형 등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많이 추출되었다. 이는 우리 전통건축과 전통복식에서 조화, 통일, 균형 등

의 디자인 원리를 중요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식에서 '울동'과 '전환'에 대한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났고 '균형-불균형'에 대한 이미지어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건축에서는 '균형'에 대한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났고 '불균형'에 대한 이미지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범주 및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조화		여백의 조화된	6(1.38)	조화된 여백의 융합	16(2.04)
통일		통일적 동일성	5(1.15)	통일적 합일 질서 질서정연한	13(1.66)
대비		대조적	1(0.23)	대비 대조적 대응의	7(0.89)
균형	균형-불균형	안정적 구조적 균형의	8(1.84)	대칭적 안정적 구조적 짜임새있는	21(2.68)
		비대칭적 비구조적 불균형의	6(1.38)	불균형의	1(0.13)
강조		강조의	1(0.23)	강조의	1(0.13)
울동		울동적 선율적 리듬감의	10(2.30)	울동적 리듬감의	2(0.26)
전환	변화있는-변화없는	가변성 비규칙적 비균제의	6(1.38)	변화의 비균질한	3(0.38)
		단조로운	2(0.46)		
반복		반복의	1(0.23)	중첩의 겹겹이 쌓은 반복의	4(0.51)
점진				점의	1(0.13)
비례		비례의	1(0.23)	비례의	3(0.38)
합계			47(10.83)		73(9.31)

### 3-3. 추상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추상성 이미지어를 다음[표4]과 같이 사상, 관념, 감성/감정, 심미성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건축과 전통복식 모두에서 다른 요인과 관련된 이미지어

보다 더 많은 이미지어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전통건축과 전통복식에서는 미적 측면보다는 사상적·관념적 측면과 관련된 이미지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추상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범주	분야	복식	건축
		빈도(%)	빈도(%)
	사상	41 ( 9.45)	70 ( 8.93)
	관념	33 ( 7.60)	76 ( 9.69)
	감성/감정	82 (18.89)	116 (14.80)
	심미성	53 ( 12.2)	118 (15.05)
	총합계	209 (48.16)	380 (48.47)

3-3-1. 사상

인간의 사상적 측면은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영향과 타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해 변천, 융합, 파생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므로 단일하며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시베리아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민족은 전통적 샤머니즘에 유교, 불교, 도교 등을 수용하면서 그 사상적 특성이 복합되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4-1]과 같이 편의상 사상과 관련된 이미지어를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 민간신앙 그리고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여러 범주에 걸쳐 중복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어는 그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항목에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주별로는 동양사상을 지배하는 대표적 사상인 '음양오양사상'에 대한 이미지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

났으며, '불교사상'과 '도교사상'에 대한 이미지어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이 조선시대에 국한된 한계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조선은 억불숭유의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유교사상에 대한 이미지어보다 불교사상에 대한 이미지어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세부항목별로는 복식에서는 '길상의(1.15%)', '벽사의(1.15%)' 등 '민간신앙'에 대한 이미지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음양오행의(0.77%)', '풍수지리의(0.77%)' 등과 같은 '음양오행사상'에 관한 이미지어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고 '민간신앙'에 대한 이미지어는 비교적 적게 나타난 차이를 보였다. 건축에서는 음양오행사상과 풍수지리사상이 실제로 집짓는 터를 찾는 것에서부터 건축물을 짓는 것에 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미지어가 많이 추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 추상성 중 사상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이미지어	빈도(%)
유교사상	유교적		7 (1.61)	유교적	20 (2.55)
	청렴결백한 절제된 풍류사상			남녀유별 남존여비 내외사상 조상숭배 절개의 장유유서 일원적 이원적	
불교사상	불교적	금욕주의적	6 (1.38)	불교적	3 (0.38)
	노장사상		1 (0.23)	노장사상 도교적 무개념의 무관심 무의 무경계성 비위진 빈자의 수복강령	10 (1.28)
민간신앙	길상의 벽사의 주술적		18 (4.15)	장수 행운 주술적	11 (1.40)
	민속신앙 무속신앙 염원의 믿음의			민간신앙 무교적 염원의 다남의 관습적 현세적	
음양오행사상	음양오행	풍수지리 오복신념	9 (2.07)	음양오행 음양론 오행론 방위론 풍수지리 소우주 우주관 태극사상 삼라만상의 조화	26 (3.32)
	합계		41 (9.45)		70 (8.93)

3-3-2. 관념

관념이란 어떤 사물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생각이나 의식이다. 복식과 건축은 인류의 문화와 삶 그 자체를 나타내는 문화 유산이므로, 복식과 건축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생활상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전통건축과 전통복식에는 우리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념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의 [표4-2]에 제시된 것처럼 복식과 건축의 관념에 대한 이미지어로 '이상적'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복식에서는 '관용적'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건축에서는 '위계적'을 나타내는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난 차별성을 보였다. 건축에서 '평등한' 보다는 '위계적'과 같은 계급적 관념에 관한 이미지어가 많이 추출된 것은 조선의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계급

사회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3-3-3. 감성 / 감정

감성이란 감각적 자극이나 인상(印象)을 받아들이거나, 경험을 수반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력이고, 감정이란 주위의 어떤 대상이나 일이나 현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기쁨, 즐거움, 슬픔, 괴로움, 두려움, 노여움, 사랑, 미움 등의 기분의 상태이다. 감성/감정에 관한 이미지어는 위의 [표4-3]과 같이 대립되는 이미지어쌍으로 세부항목을 나누었다. 감성에 관한 이미지어는 '남성적'-'여성적'과 '고귀한'-'소박한'으로, 감정에 관한 이미지어는 '즐거움'-'슬픈'과 '홍분한'-'차분한'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남성적-여성적'을 나타내는 감성 이미지어는, 공통적으로

‘생명력있는’, ‘역동적’과 같은 ‘남성적’ 감성보다는 ‘온화한’, ‘단정한’, ‘순수한’과 같은 ‘여성적’ 감성의 이미지가 더 많이 추출되었다. 복식에서는 ‘여성적’ 이미지가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으나, 건축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차이가 복식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대부분이 여성복식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귀한’-‘소박한’을 나타내는 감성 이미지로 복식에서는 ‘우아한(1.15%)’, ‘격식미(0.92%)’와 같은 ‘고귀한’ 감성 이미지와 ‘소박한(1.61%)’, ‘담백한(0.92%)’과 같은 소박한 감성 이미지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소박한’

을 나타내는 감성 이미지가 ‘고귀한’ 감성 이미지보다 매우 많이 나타났다.

‘즐거움’-‘슬픔’에 대한 감정 이미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즐거움’ 감성 이미지가 더 많이 나타났다. ‘슬픔’ 감정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복식에서 약간 나타났고 건축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홍분한’-‘차분한’에 대한 감정 이미지에에서, 두 분야 모두에서 ‘홍분한’을 나타내는 감성 이미지보다는 ‘차분한’ 감정과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추출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 본 ‘여성적’, ‘고귀한’, ‘소박한’을 나타내는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 추상성 중 관념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	이미지어	빈도 (%)
위계적 - 평등한	엄격한	1 (0.23)	위계적 위엄있는 계층적 기층적 권위적 보수적 엄격한 주종의 상하의	17 (2.17)
			평등한	1 (0.13)
관용적	겸허한 포용적 너그러운 겸손의	10 (2.30)	겸허한 포용적 겸손의 겸양외	11 (1.40)
	사려깊은 씨는		관용적 너그러운 원만한	
해탈적	초월한 관조의	2 (0.46)	초월한 관조의 초속적	6 (0.77)
이상적	상징적 관념적 개념적 형이상학적	14 (3.23)	상징적 정신적 관념적 이상적 이론적	19 (2.42)
	엄숙한 신성한 성스러운		성스러운 경건한 신성한	
도덕적	절제된 결백한 절도의	5 (1.15)	도덕적 규범적 진실한	6 (0.77)
중심적			주관적 주제적 중심성 중심화 구심성	5 (0.64)
개체적 - 전체적			개체성	1 (0.13)
			전체성	2 (0.26)
상대적 - 상보적			상대적	3 (0.38)
	상호보완적	1 (0.23)	상보적 상호유기적	5 (0.64)
합계		33(7.60)		76 (9.69)

[표 4-3] 추상성 중 감성/감정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	이미지어	빈도 (%)
남성적-여성적	생생감 생명력있는 역동적	5 (1.15)	생명력있는 남성적 생동감 역동적	15 (1.91)
	정중미		강건한 강직한 신념의 힘있는	
	단정한 순수한 정적미 깨끗한 여성적 깔끔한 부드러운 순결한 물들지않는 정갈한 관능적	27 (6.22)	온화한 부드러운 순수한 깨끗한 여성적 청초한 깔끔한 낭만의 단정한 맑은	21 (2.68)
고귀한-소박한	우아한 격식미 인격미 품위있는 단아한 고아한 고상한	19 (4.38)	단아한 고귀한 품위있는 격조높은 고고한 고담한 고이한 승고한 위대한	15 (1.91)
	소박한 담백한 소담한 질박한 토속적	14 (3.23)	소박한 겸손한 순박한 담백한 담박한 구수한 텅텅한 서민적 민서적 수수한 평민적 범상의 평범한 평상미 생활미	38 (4.85)
즐거움-슬픔	행복한 즐거운 해학적 쾌감성 골계미	5 (1.15)	행복한 즐거운 재미있는 활기찬 경쾌한	6 (0.77)
	비애미 비장미	3 (0.69)		
홍분한-차분한	감정적	3 (0.69)	급한 극적	3 (0.38)
	여유로운 조용한	6 (1.38)	여유로운 조용한 정적 담담한 덤덤한 무미건조한 차분한 여유자작하는 유유한 한가로운 고요한 적막한 평화로운 호젓한	18 (2.30)
합계		82 (18.89)		116 (14.80)

### 3-3-4. 심미성

심미성이란 아름답다는 느낌, 즉 미의식을 뜻하는 것으로 매우 주관적이지만 시대나 국가, 민족에 따라 공통된 미의식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성에 대한 이미지어를 ‘자연미-인공미’와 ‘인간미(人間味)’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연미를

뽑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표4-4]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미'에 대한 이미지가 '인공미'에 대한 이미지에 비하여 매우 많이 나타났고 전체 범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민족의 생활정서가 심미적 차원으로 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미에 대한 이미지도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 전체로 볼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간미'에 대한 이미지가 추출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 복식 그리고 건축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인간적인 의복과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 3-4. 표현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표현성이란 사상이나 감성/감정 등을 언어나 행위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표현성에 대한 이미지어는 [표5]와 같이 표현 방식과 표현태도의 2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현방식을 나타내는 이미지어를 '간접적-직접적'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분야 모두 '간접적' 표현방식에 대한 이미지어가 많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직접적' 표현방식에 대한 이미지도 약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이미지어를 '소극적/수동적 - 적극적/능동적'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복식은 이에 해당되는 이미지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건축에서는 '소극적/수동적' 표현태도보다 '적극적/능동적' 표현태도가 많이 나타난 차이를 보였다.

[표 4-4] 추상성 중 심미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	이미지어	빈도 (%)
자연미		자연스러운 자연미 자연주의 자연의 자연과의 융화 자연모방	18 (4.14)	자연스러운 자연의 자연미 자연적 자연주의 자연그대로의 자연과의 융화 자연과의 조화 자연에의 순응 자연발생적 친자연성 무위자연	39 (5.07)
		무기교 무계획 꾸밈없는 본연의 천연의 가공하지않은 비자극적 비정제성 장식이 배제된	15 (3.45)	무기교 무계획 무작위 비정제성 원형의 탈기교 꾸미지않은 꾸밈없는 다듬지않은 비인위적 인공이전의 있는그대로의 작위하지않은 장식없는 장식의 절제 장식이 배제된 정교하지않은 정제되지않는 헛점이 있는	29 (3.77)
		순응하는	1 (0.23)	순응하는 순리적 거부감없는 나름대로의 싫증나지않는	9 (1.17)
	소계	34 (7.83)	소계	77 (9.82)	
인공미		섬세미 장식적 정교한 화려한 세련된 완결된	16 (3.69)	아름다운 세련된 섬세미 장식적 정교한 다듬어진 완숙한 완결된 완숙한 유려한 인위적 정선된 정제된 규격화 과학적 회화적	24 (3.06)
인간미		친근한 인체분위의 인체선을 따르는	3 (0.69)	인간적 인간중심적 친밀한 친근한 안락한 정다운 화목한 인본주의	17 (2.17)
합계			53 (12.2)		118 (15.05)

[표 5] 표현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빈도

범주 및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어	빈도 (%)	이미지어	빈도 (%)
표현방식	직접적 - 간접적	사실적 선명한 직관적	3 (0.69)	명확한 명료한 명쾌한 비모호성 선명한 솔직한	7 (0.89)
		은은한 은근한 은폐적 미묘한 은밀한 그윽한 비정확성 비확정성 감추는	15 (3.46)	은은한 은유적 은근한 암시적 은밀한 은폐적 풍자적 모호한 추상적 간접적	12 (1.53)
		소계	18 (4.15)		19 (2.42)
표현태도	적극적 / 능동적 - 소극적 / 수동적			적극적 정면성 독립된 독자적 독창적 단일한 우수한 중요한 희소한 독특한 진귀한 발전된	14 (1.79)
		소극적	1 (0.23)	소극적 지역성 주체성없는 수동적 무비판적 조악한 협소한	8 (1.02)
소계			1 (0.23)		22 (2.81)
합계			19 (4.38)		41 (5.23)

### 3-5. 기능성과 관련된 이미지어 특성

기능성과 관련된 이미지어를 [표6]과 같이 다목적성, 간결

성과 유용성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분야 모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

고, 긍정적인 측면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복식보다는 건축에서 기능성에 대한 이미지가 더 많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종교사상, 가족제도, 자연환경 요인 등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건축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왔음

을 보여주었다. 기능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범주는 전통복식과 건축에 수반되는 형태와 사상·관념이 기능에 흡수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기능성과 관련된 이미지 빈도

범주 및 항목		분야	복식		건축	
			이미지	빈도 (%)	이미지	빈도 (%)
다목적성	다기능적 -기능분화		유동적 융통성있는 탄력있는	7 (1.61)	융통성있는 복합적 다목적성	22 (2.81)
					유연성 다기능의 매개적 유동적	
					가변성 전이성 전용성 다의적 역할	
					절충식 겸용한	
					세분화 기능분화	1 (0.13)
소계				7 (1.61)		24 (3.06)
간결성	간결한	단순한 단순한 간소한	9 (2.07)	단순한 간결한 간소한 간단한	9 (1.15)	
소계				9 (2.07)		9 (1.15)
유용성	유용한 -유용하지 않은		편안한 편리한	5 (1.15)	기능적 합리적 실용적 효율적	33 (4.21)
					편리한 간편한 편안한 기능에 충실한	
					유용한 실제적 현실적 경제적 이동성	
					쾌적한 시원한	
					불합리한	3 (0.38)
소계				5 (1.15)		42 (5.36)
합계				21 (4.84)		75 (9.57)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복식과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표현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한 이미지를 요인별로 요약하여 비교하면 <그림1>과 같다.

#### 4.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인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틀을 제시하고 이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을 도출함으로써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정서와 이미지를 구체적 어휘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요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형, 선, 공간, 색채, 재질의 5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복식에서는 형태, 색채와 재질에 대한 이미지가 고루 나타났으며, 건축에서는 형과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출되었다.

형을 나타내는 특성에서 복식에서는 '풍성한', '기하학적', '평면의' 등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건축에서는 '큰', '좁은' 등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입체보다는 평면에 관한 이미지와 복잡한 보다는 단순한 이미지가 많이 추출되었고 복식에서는 '큰' 이미지만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큰' 이미지와 '작은'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선을 나타내는 특성은 복식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적' 이미지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 부드러운 느낌으로만 표현된 것에 비해 건축에서는 '직선적'-'곡선적'과 '부드러운'-'강한'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공간을 나타내는 특성은 주로 건축에서 많이 나타났고 '열린'과 '닫힌', '연속'과 '분절', '높은'과 '낮은'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색채를 나타내는 특성은 공통적으로 '화려한' 이미지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고 복식에서는 무채색보다 자연색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무채색과 자연색에 이미지가 비슷하게 나타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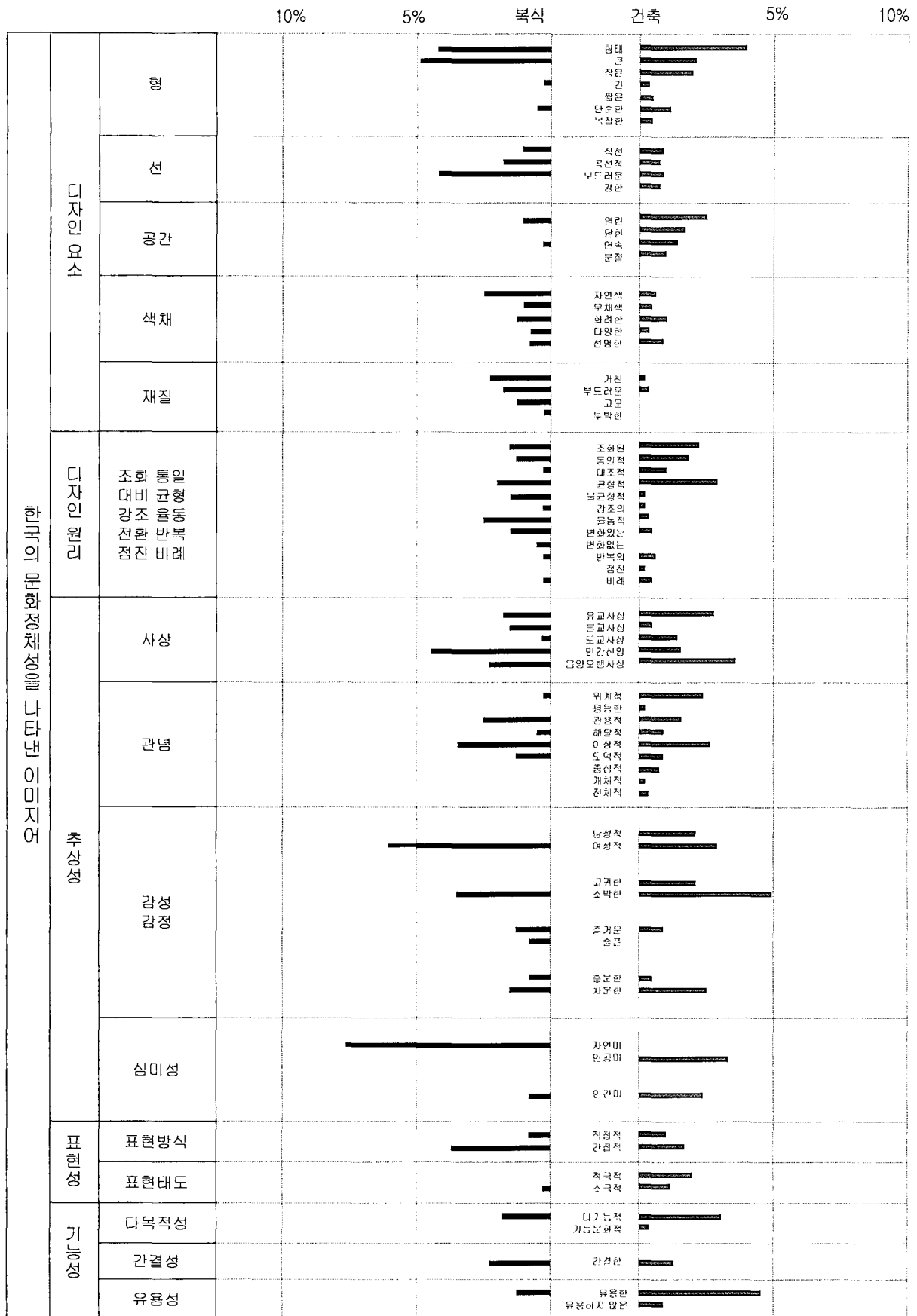
재질을 나타내는 특성은 복식에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시각적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차별적으로 복식에서는 '거친'과 '부드러운'의 촉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비슷하게 많이 나타난 것이었다.

2.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이미지를 조화, 통일, 대비, 균형, 강조, 울동, 변화, 리듬, 반복, 점진, 비례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두 분야 모두에서 조화, 통일, 균형 등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출되었다. 특히 복식에서는 '울동'과 '전환'이 많이 나타났고 '균형'과 '불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건축에서는 '불균형'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 추상성과 관련된 이미지를 사상, 관념, 감성/감정, 심미성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는 전통복식과 건축에서는 사상적·관념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 매우 많은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상을 나타내는 특성은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음양오행사상 등이 복합되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공통점을 보였다. 복식에서는 '민간신앙'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음양오행사상'의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관념을 나타내는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념이 내재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계급사회의 영향인 계급적 관념에 관한 이미지는 복식보다는 건축에서 많이 추출되었다.



[그림 1]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한 이미지에 대한 복식·건축간 요인별 빈도 비교

감성/감정을 나타내는 특성은 두 분야 모두 '남성적'보다는 '여성적' 감성이미지여가, '슬픈'보다는 '즐거움' 감성이미지여가, '홍분한'보다는 '차분한' 감성 이미지여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또한 복식에서는 '소박한' 보다는 '고귀한' 감성 이미지여가 많이 나타난 반면, 건축에서는 '고귀한' 보다는 '소박한' 감성 이미지여가 많이 나타났다.

심미성을 나타내는 특성 중 우리 민족이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과 건축, 복식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자연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자연미'를 나타내는 이미지여가 전체 범주에서 가장 많이 추출되었고 '인간미'에 대한 이미지여도 나타났다.

4. 표현성과 관련된 이미지여를 표현방식과 표현태도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직접적 표현방식 이미지여보다 간접적 표현방식이 많이 나타났고 표현태도에 있어 건축에서 소극적/수동적 표현태도보다 적극적/능동적 표현태도가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5. 기능성과 관련된 이미지여를 다목적성, 간결성과 유용성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히 복식보다는 건축에서 기능성에 대한 이미지여가 더 많이 추출되었다. 공통적으로 '다목적성', '간결성', '유용성'과 같은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의 이미지여가 많이 나타나 형태와 사상·관념이 기능에 흡수되었던 합리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복식과 건축에서 나타난 한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여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정서와 이미지가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오던 이미지 외에도 더욱 다양한 것을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채는 무채색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채도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소박한' 이미지와 더불어 '고귀한' 이미지도 우리 전통 이미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한(恨)과 비애의 이미지가 우리의 전통 이미지로 그동안 인식되어왔던 것에 비해 본 복식과 건축의 연구에서는 '즐거움' 이미지도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직접적 보다는 간접적이었으나 표현태도에서는 적극적/능동적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우리의 전통 건축은 기능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문화의 정체성은 우리의 주체적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타문화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어 부정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많았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버리고 본 복식과 건축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여기에 현대의 다양한 정보와 기술, 가치를 비교하여 디자인의 지속성과 변화를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세계화된 한국의 디자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금기숙, 조선복식의 연구, 복식, 제14호, 1990
- 김경재, 한국현대건축에 표현된 한국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21호, 1999.
- 김영기, Native design의 개념, 디자인학연구, 제17호, 1996.
- 김윤희, 한국복식의 미적 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5호, 1997.
-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제3호, 1995.
- 박영순·윤지영, 1960년대 이후 한국 주택의 스타일과 이미지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21호, 1999.
- 변해석,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1998.
- 엄정식·김명석, 제품의 문화적 기능에 있어서 친근성 인자에 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제22호, 1997.
- 오혜경, 조선시대 상류주택 실내공간의 디자인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13호, 1997.
- 우경국, 한국 현대 건축에서 정체성의 실체와 표현, plus, 1999.9.
- 윤복자·이지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8호, 1994.
- 이경희, 한국적 의복이미지와 디자인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 2호, 1997.
- 이법재·김창언, 공공문화건설물의 전통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4호, 1994.
- 이상해,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정체성, 건축사, 1999. 12.
- 조지훈, 한국문화사서설, 나남출판, 1996.
-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 최세완·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지, 제17권, 제1호, 1993.